

#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애착전이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애착전이모형 검증에 중심적으로\*

## Effects of Childhood Attachment on Attachment Transition and Loneliness in Adolescence: An Examination of Attachment Transfer Process Model\*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강사 전효정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부교수 이귀옥

Dept. of Living Management, KyungSung Univ.  
Instructor : Hyo-Jeong Jeon  
Dept. of Living Management, KyungSung Univ.  
Prof. : Kwe-Ock Lee

### ◀ 목 차 ▶

- |                |             |
|----------------|-------------|
| I. 서론 및 문제제기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 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논의   |             |

### < Abstract >

Recently, many researchers have been interested in attachment processes in adolescence. However, the nature of attachment formation and transfer during this developmental period were not answered yet. This study examine the mechanism of attachment transfer from parents to friends, and the effects of childhood attachment styles on the level of attachment transfer and loneliness in adolescence.

The results show the majority of participants(70%) used their parents as primary attachment figures but were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attachment-related functions from parents to peers. There were the significant effects of attachment style, the level of transfer on state and trait loneliness in adolescence.

This study provid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 for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adolescent attachment formation and loneliness.

#### I. 서론 및 문제 제기

최근 여러 연구자들이 Bowlby의 애착이론

(1969/1982, 1973, 1980)을 청소년기 및 성인기 대인  
관계의 역동성에 관한 연구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

\* 본 연구는 1998년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 연수과정의 지원금으로 진행된 연수 project의 일부입니다.

한 연구는 전생애적 관점에서 아동기 이후의 청소년기 및 성인기의 이해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애착(애착유형)의 내적 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있어서의 개인차와 이에 관련된 변인들을 조사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친밀한 관계 발달에 대한 애착이론의 표준해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아기 부모와 형성한 애착유형이 청소년기 친구관계에서도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지의 여부와, 최근 Hazan 등에 의해 제시된 애착형성모형(Hazan, Hutt, Sturgeon, & Bricker, 1991; Hazan & Shaver, 1994)을 살펴보고, 한국 표본에서 Hazan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나아가, 애착유형과 애착전이의 수준이 청소년들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 생물 중에서 가장 무기력한 상태로 태어나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많은 시간과 무한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며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따라서, 부모의 사랑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성장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인생의 초기단계 동안 영아는 한정된 특정 양육대상자에게 지속적 접촉을 유지하고 추구하는 강한 성향을 보인다. Bowlby(1969/1982)는 이러한 경향성을 유아와 일차양육대상자의 근접성을 유지하는 애착행동체계의 기능의 결과로 설명한다. 이러한 체계의 발달은 무기력한 유아가 생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즉, 유아는 생존을 위해 양육대상자에게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욕구와 부재 시 울거나 찾기와 같은 타고난 행동적 반응과 유아특유의 외형적 귀여움(큰 눈, 튀어나온 이마 등)으로 성인으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이끌어 낸다. 나아가, 유아-양육자와의 관계의 질(신체접촉, 신뢰감, 돌보기)이 애착형성을 증진시킨다. 애착대상이 가까이 있을 때 유아는 안정감(security)을 느끼게 됨으로 (Sroufe & Waters, 1977), 더 사회적이며 자유롭게 주변을 탐색한다. 반면, 애착대상과 격리 시에는 애착대상에게 근접하기 위해 부르기, 울기 혹은 찾기 등의 행동을 취한다.

이러한 진화론적 관점에서 비롯된 Bowlby의 애착이론은 부모-자녀 관계뿐 아니라 인생전반에 걸쳐

널리 쓰일 수 있는 이론적 패러다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야 몇몇 연구자에 의해 그 관심이 성인기까지 확장되었다(Hazan & Shaver, 1987; Shaver, Hazan, & Bradshaw, 1988; Weiss, 1975). Hazan과 Shaver(1987, 1994)는 성인의 애정관계에서도 애착체계가 나타나고, 애착이 돌보기와 성적/재생산 행동체계와 상호작용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인-성인의 애착의 역동체계는 아동-양육대상자의 체계와 유사하다(Fraley, Davis, & Shaver, 1995; Simpson, Rholes, & Nelligan, 1992; Vormbrock, 1993; Weiss, 1975).

유아기에 부모와 형성한 애착이 이후의 모든 대인관계에 기저가 된다는 것은 다양한 연구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Bowlby, 1988; Ainsworth, 1978).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유형은 감정적,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으로 상호 연관된 방법으로 전생애에 걸쳐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Bowlby는 자신과 타인 혹은 자신과 사회생활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에 있어서의 인지적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아기 애착행동의 체계가 전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Bowlby의 주장은 다양한 종단적 연구와 회고적 면접 등에서 지지되고 있다(e. g., Dantas, Maratos, Fafoutis, & Karangelis, 1985; Erikson, Sroufe, & Egeland, 1985; Sroufe, 1983; Waters, Wippman, & Sroufe, 1979). 영아가 양육자와 관계에서 형성한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Goldberg, 1991; Cicirelli, 1993). 부모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영유아는 또래관계가 더 활발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더 성취 지향적인 경향을 보인다 (Ainsworth et al., 1978; Cassidy, 1986; Denham et al., 1991; Main et al., 1985; Sroufe, 1979). 청소년기의 교우관계, 학업성취 등의 학교생활 적응에도 애착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유은희, 1993; Armsden & Greenberg, 1987). 나아가, 유아기 애착 경험은 성인기 직장생활, 부부관계 등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이 있으며(전효정, 1991; 전효정, 1996), 자녀 양육의 질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Rutter, Quinton, & Liddle, 1983), 노인기의 생활만족과 외로움과도 관계가 있었다 (신효식, 서병숙,

1995; Hazan, 1991).

발달 단계에 따라 애착대상은 부모에게서, 친구, 로맨틱 파트너/배우자 등으로 이동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애착관련 기능은 아동과 애착대상의 관계가 아동의 다른 관계와 비교하여 구별되는 몇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Ainsworth, 1991; Hazan et al., 1991; Hazan & Shaver, 1994).

첫째, 애착대상에게 근접성 유지 (proximity maintenance)를 보인다. 아동은 애착대상과 격리 시에 강하게 저항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성인이나 또래와의 격리는 디스트레스나 강한 재접촉의 욕구를 유발시키지 않는다.

둘째, 애착대상은 아동에게 안락감(safe haven)을 제공한다. 아동은 디스트레스 시 접촉과 확인, 그리고 안락감을 얻기 위해 애착대상을 찾는다. 비록 디스트레스한 아동은 다른 성인의 돌보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일차 애착대상자 없이는 효율적으로 달래지지 않는다(Bowlby, 1969/1982; Heinicke & Westheimer, 1966).

셋째, 애착대상자는 아동의 환경 탐색에 있어서 안정기저(secure base)로 이용된다. 아동은 애착대상이 가까이 있거나 필요시 근접이 용이하다는 것을 알 때만 낯선 새로운 환경을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애착의 세 가지 특징적 요소, 즉 안정기저(secure base), 접근추구(proximity seeking), 심리적 안락감(safe haven)이 어떤 기제(mechanism)를 통해 부모에게서 다른 애착대상(또래)으로 전이되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다. 최근 Hazan은 이러한 연구에 기저가 될 수 있는 애착형성모형을 개발했다(Hazan et al., 1991; Hazan & Shaver, 1994). Hazan은 성인기 애착관계 역시 아동기 애착과 동일하게 애착대상과 근접성 유지, 애착대상의 안락감 제공, 그리고 애착대상을 안정기저로 이용하는 등 세 가지 요소로 특징 지워진다고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애착관계의 발달은 이러한 각 요소들이 차례로 부모(일차 애착 대상자)에게서 또래(잠재적 애착대상자)로 전이되면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Hazan은 횡단적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애착관련 기능들이 제시한 모형에 따라 정확히 부모에게서 또

래로 전이된다고 보고하였다(Hazan & Zeifman, 1994). 근접성 추요소는 아동초기에 전이되고, 안락감은 청소년기에 전이되며, 안정기저는 성인초기에 전이된다고 보고하였다(Hazan & Zeifman, 1994; Hazan & Shaver, 1994).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는 심리적 독립 (detachment)이 일어나고, 친구에게는 애착형성이 완전히 되지 않은 불안정한 시기이므로, 발달단계 중 외로움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이다. 외로움은 문화, 인종, 성, 계층, 연령에 관계없이 인간에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경험으로, 일시적 또는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인간의 사고, 감정,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복합정서이다. Rubenstein과 Shaver(1982)에 의하면, 대다수의 미국인은 때때로 외로움을 느끼고, 약 15%는 항상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외로움, 즉 소속감의 결여에서 오는 정서적 단절감은 자기비하와 상실감,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하고 심지어 사회에서 심각한 부적응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의 의사소통 단절과 외로움에 의해 아동 및 청소년의 자살 등의 심각한 청소년 문제들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성상 외로움이 가장 높은 시기로 이로 인하여 문제행동이 야기되기 쉽다. Brennan(1982)의 연구에서 미국 청소년의 20-50%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기가 외로움지수가 가장 높은 집단임은 몇몇 연구에서 밝혀졌으나(Shaver, Furman & Buhrmester, 1985; Rubenstein & Shaver, 1982; 도현심, 1996), 그 원인이나 기제에 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 논문도 거의 부재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문제를 전생애적 발달 관점에서 애착을 중심으로 아동기 경험에 중점을 두어 고찰하여, 청소년기의 애착전이와 외로움의 기제를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년기 부모와 애착이 또래와의 애착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Hazan의 애착형성 모형의 검증으로 애착대상의 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밝히고, 나아가 이것이 청소년기 외로움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문제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기 부모와 애착유형과 청소년기 또래와의 애착유형에는 일관성이 있는가? 즉, 애착유형의 지속성의 여부를 알아보려 한다.

〈연구문제 2〉 청소년기 애착대상이 부모에게서 또래 친구에게로 어떤 과정을 통해 전이되는가? 즉, 애착의 세 가지 기능--안정기저(secure base), 접근추구(proximity seeking), 심리적 안락감(safe haven)-은 어떻게 옮겨가는가? Hazan모형에서 제시된 것처럼 애착관련 요소들이 순차적으로, 즉 접근추구가 먼저 전이되고, 다음 안락감이 전이되고, 마지막으로 안정기저가 전이되는지 Hazan의 가설을 한국 표집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3〉 유아기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유형에 따라 청소년기의 애착전이에 차이가 있는가? 애착전이의 수준이 현재 또래와의 애착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4〉 청소년기 외로움은 유아기 부모와 애착 그리고 현재 애착상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애착의 전이 정도에 따라 외로움지수에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부산 시내 소재한 남녀 고등학교 각 1개교씩 선별하여 남학생 200명, 여학생 218명, 총 418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애착의 전이와 외로움을 발달적 맥락에서 보는 것이므로, 그 변화과정을 보기 위하여 애착 전이가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4종류의 질문지로 되어 있으며, 이는 청소년과 이들 부모들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 현재 생활만족도, 아동기 및 현재의 애착, 애착관련

기능의 전이, 그리고 외로움 등에 관한 질문지들이다. 각 질문지의 문항들은 범주형 질문과 Likert척도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진 4점 혹은 7점 Likert 식 척도는 각 특성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로 평가되었다.

현재 생활 만족도는 1문항으로 구성된 전반적인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족 또는 만족의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본 연구의 중요 변수인 외로움을 측정하는 도구 중 일시적 외로움은 현재 상황에 많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구자가 인구 통계학적 질문에 덧붙였다.

아동기 및 현재 애착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Hazan 과 Shaver(1991)가 개발한 5 문항으로 구성된 애착도구(Attachment scale)를 전효정(1992)이 변안한 한국판 애착도구를 토대로 아버지 애착, 어머니 애착, 그리고 친구 애착용으로 각각 수정 보완하여 이용하였다. 애착유형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각각 안정형(Secure), 불안형(Anxious), 그리고 거부형(Avoidant)으로 분류되었다. 청소년기 애착유형 문항의 예를 들면 안정형은 '나는 비교적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믿고 의지한다. 나는 친구들에게 버림받거나, 나에게 지나치게 가까이 하려는 것에 대해 좀처럼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그들은 믿을 만하고 그들도 나를 아주 많이 염려해 준다고 느낀다.' 불안형은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친구들이 나와 가까이 지니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 가끔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나와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까 염려한다. 내가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가까이 하려고 해서, 가끔 사람들이 피하는 경우도 있다.' 회피형은 '나는 친구들과 가까워지는 것이 좀 불편하고, 상대방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가 어렵다. 다른 친구가 나와 친해지려고 접근해 오면 불안하며, 상대가 내가 편하게 느끼는 것 보다 더 친해지기를 원할 때가 가끔 있다.' 위의 각 문항이 본인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 그 정도를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으로 표시하고, 가장 본인과 흡사하다고 생각되는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동기 애착도구의 1개월 간격의 사전-사후검증 계수

(test-retest coefficient)는 .83이었고, 청소년기 애착 도구의 사전-사후검증 계수(test-retest coefficient)는 .81이었다.

애착기능의 전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Hazan(1991)이 개발한 애착관련 기능 척도(WHOTO) 12문항을 전효정(1992)이 번안한 한국판 도구를 사용하였다. 누구에게 얼마만큼 애착이 형성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전이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12문항 중 대표적인 6문항만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애착의 주요 요소들--근접추구(proximity seeking), 안락감(safe haven), 그리고 안정기지(secure base)가 각각 누구에게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근접추구는 가까이 있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락감은 불안감이나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안정을 위해 누구에게 의지하는가에 관련된 내용이며, 안정기지는 항상 나를 도와주고 언제나 내가 의지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대상을 묻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개월에 걸친 사전-사후 검증 계수(test-retest coefficient)는 .79였다.

외로움척도는 Rubenstein과 Shaver(1982)가 개발한 NYU Loneliness Scale을 청소년에 맞게 번안하여 일시적, 기질적 외로움을 측정하였다. 각 척도는 16 문항으로(예, 혼자 내버려진 기분이다,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있다)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으로 이루어진 Likert 식 척도이다. 일시적 외로움과 기질적 외로움 도구는 각 문항의 시작이 일시적 외로움은 "지난 몇 주 동안"으로 시작되는 반면, 기질적 외로움은 "지난 몇 년 동안"으로 시작되는 것 이외에는 동일하다. 각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alpha$ 는 일시적 외로움이 .90, 기질적 외로움이 .92이었다.

### 3. 자료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모의 애착과 또래의 애착간의 상관관계와 카이검증을 실시한다. 두 번째 애착의 전이 정도와 과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백분율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한다. 제시된 Hazan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Guttman scalogram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와 애착 경험이 애착의 전이의 정도와 현재 또래와 애착과의 관계를 파악을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과 변량분석(ANOVA)을 실시한다. 네 번째, 유아기 애착과 애착의 전이 정도가 청소년기 외로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변량분석(ANOVA) 및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한다.

## III. 연구결과 및 논의

### 1.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유형과 청소년기 또래 애착

유년기 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토대로 한 부모와의 애착을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애착의 경우 38.8%(159명)이 안정형, 56.5%(232명)가 불안형, 그리고 4.6%(19명)이 거부형으로 보고하였고, 어머니와의 애착은 59.5%(247명)가 안정형, 38.3%(159명)가 불안 애착형, 2.1%(9명)가 회피형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안정형(Secure), 불안형(Anxious), 거부형(Avoidant)의 비율이 60%, 20%, 20%인데 비하여, 아버지와의 애착은 안정형 애착(Secure)의 비율이 낮고, 불안정 애착(Insecure)의 비율이 높았다. 불안정(Insecure) 애착 중에서 거부형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불안형이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이 비교적 엄하고 애정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형(애정과 이해심이 많고 적절하게 대해주셨다)의 비율이 낮고, 이러한 점을 애정이 없고 거부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애정은 있으나 적절히 표현해주지 못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불안형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와의 애착은 안정애착에 대한 불안정 애착의 비율이 60대 40으로 기존 연구와 유사하나, 불안정 애착유형 중 대부분이 불안형이고 거부형은 거의 없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경험 회고에 있어서 기억의 왜곡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부

모들이 그들에게 애정이 없거나 거부했다고 기억하기보다는 애정은 있으나 표현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친구와의 애착을 살펴보면, 58.6%(242명)가 안정형, 21.8%(34명)가 불안형, 그리고 19.4%(80명)가 회피형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유형별 비율이 유사하다(Hazan et al, 1991; Hazan & Shaver, 1994).

어린 시절 부모와의 애착과 현재 또래와의 애착의 관련성을 알기 위하여 카이검증과 상관관계가 측정되었다. 유년기 아버지와 안정형 애착을 경험한 158명의 경우 69.6%(110명)가 청소년기 또래와 안정형 애착을 보였고, 15.8%(25명)가 불안형, 14.6%(23명)가 거부형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불안형 애착 경험을 했다고 보고한 학생 230명 중 26.5%(61명)가 친구와 불안형으로 보고하였고, 51.3%(118명)가 안정형으로, 22.2%(51명)가 거부형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거부형 애착을 가진 학생 20명 중 20%(4명)가 친구와 거부형 애착을, 65%가 안정형(13명)으로, 15%(3명)가 불안형으로 나타났다(Hazan & Shaver, 1987).

아버지와의 애착과 유사하게,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안정애착을 경험한 245명의 학생 중 66.5%(163명)가 청소년기 또래와 안정형 애착을 보였고, 불안형과 거부형이 각각 16.7%씩(41명)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불안형 애착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159명의 학생 중 28.9%(46명)가 청소년기 또래와의 관계도 불안형으로 나타났으며, 50.3%(80명)는 안정형으로 20.8%(33명)는 거부형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거부형 애착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9명의 학생 중 55.6%(5명)가 청소년기 또래와도 거부형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11.1%(1명)는 안정형으로 33.3%(3명)는 불안형으로 보고하였다.

위 결과에 의하면, 어린 시절 부모와 안정형 애착을 경험한 학생의 대부분(약 70%)은 청소년기에 친구와도 안정형 애착을 형성하였으며, 부모와 불안형 애착을 경험한 경우는 반 정도는 불안형 또는 거부형으로 친구애착을 형성하였고, 나머지는 받은 안정

형으로 전환되었다. 거부형의 경우도 아버지와 애착과 비교하면 65%, 어머니와 애착을 비교할 경우 11.1%가 안정형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발달과정에 있어서 애착유형의 일관성과 비일관성의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한다. 또한 애착이 부모에게서 또래로 전이되고 있는 시점이므로, 아직 일차 애착대상이 어머니인 경우가 상당히 있으며, 또래와의 애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관성 또는 비일관성에 관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경향성을 파악하는 수준이다. 부모와의 유아기 애착경험에 관한 설문에서 안정형 비율이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낮고, 불안정애착에 있어서도 거부형의 비율이 낮은 점을 고려하면 애착유형의 비일관성 보다는 기억의 왜곡에 의한 측정의 오류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즉, 부모와의 회고적 애착경험의 질문은 현재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청소년기 부모와의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보다는 불안정 애착(insecure attachment) 유형의 비율이 높을 수 있다. 반면, 불안정 애착 중에서 거부형(애정도 없고 거부했다는 질문) 보다는 불안형(부모가 애정은 있으나 적절하게 표현하거나 대해주지 못했다는 질문)의 비율이 높은 것은 사회적 인정(social desirability)과 자기 방어적 회고의 경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성장과정에서 어릴 때 부모와의 부정적 애착 경험을 했더라도, 친구나 학교생활의 긍정적 경험을 통해 중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연구들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위와 같이 애착을 범주화 시켜 보기보다는 각 애착유형의 정도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기 또래 애착은 각 동일 애착유형은 유의하게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반면, 안정형은 불안형과 거부형과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불안형은 거부형과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표 1>에 의하면, 아버지와의 애착과 현재 친구와의 애착의 상관관계는 아버지와 안정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와 안정형 수준이 높고( $r=.097^*$ ), 불안형( $r=-.140^{**}$ )과 거부형( $r=-.123^*$ ) 수준이 낮았다. 아버지와 불안형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와 불안형 수준( $r=.109^*$ )과 거부형 수준

〈표 1〉 부모와의 애착과 친구애착간의 상관관계

부모와 애착	친구 애착유형		
	안정형	불안형	거부형
아버지와 애착			
안정형	.097*	-.140**	-.123*
불안형	-.109*	.109*	.205**
거부형	-.034	.056	.142**
어머니와 애착			
안정형	.155**	-.161**	-.096*
불안형	-.185**	.210**	.179**
거부형	-.106*	.083	.125*

\*p < .05    \*\*p < .01

( $r = .205^{**}$ )이 높고 안정형 수준( $r = -.109^*$ )이 낮았다. 아버지와 거부형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와 거부형 수준( $r = .142^*$ )이 높고, 안정형 수준( $r = -.034$ )은 낮은 경향이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와의 애착과 현재 친구와의 애착의 상관관계는 어머니와 안정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와 안정형 수준이 높고( $r = .155^{**}$ ), 불안형( $r = -.161^{**}$ )과 거부형( $r = -.096^*$ ) 수준이 낮았다. 아버지와 불안형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와 불안형 수준( $r = .210^{**}$ )과 거부형 수준( $r = .179^{**}$ )이 높고 안정형 수준( $r = -.185^{**}$ )이 낮았다. 아버지와 거부형 수준이 높을수록 친구와 거부형 수준( $r = .125^*$ )이 높고, 안정형 수준( $r = -.106^*$ )은 낮았다. 즉, 유년기 부모와 안정형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기 또래 애착의 안정애착의 정도가 높고 불안형과 거부형 애착의 정도가 낮으며, 부모와 불안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기에 불안형 혹은 거부형 애착의 정도가 높고 안정형 애착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거부형 애착의 정도가 높을수록 청소년기 또래와의 거부형 애착정도가 높고 안정형 애착이 낮게 나타났다.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 애착

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애착유형의 지속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부족하다. 동일 애착유형별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하지만 기껏해야 21로 변량의 4%정도의 설명력 밖에는 없다. 또한 회고적 질문에 대한 측정의 오류, 그리고 횡단적 연구의 제한점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의 지속성의 경향성을 유추할 수는 있으나, 종단적 연구와 보다 정교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2. 애착 전이 모형의 검증

Hazan은 애착 전이 모델에서 근접성 추구요소는 아동초기에 전이되고, 안락감은 청소년기에 전이되며, 안정기저는 성인초기에 전이된다고 보고하였다(Hazan & Zeifman, 1994; Hazan & Shaver, 1984). 본 연구 대상이 청소년이므로 Hazan의 모델이 맞다면, 애착전이의 정도에 대한 가능한 반응유형은 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시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Guttman scalogram 분석(Crocker & Algina, 1986 참고)을 시행하여 수용할 수 있는 응답유형에서 전체 응답 유형 수까지의 편차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재생산 계수(Reproducibility Coefficient)가 .89로 제시된 모형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모형에 대한 또 다른 검증방법으로 애착의 각 기능에 대한 청소년 등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상대적 비율을 측정하였다. Hazan의 모형이 맞다면, 청소년들은 일차적 애착이 부모에게 있으며(안정기저가 부모), 친구를 안락감의 대상으로 더 사용할 것이며, 친구에게 근접성 추구를 훨씬 더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은 친구를 안정기저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부모를 근접성 추구 대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표 2〉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대부분(60-90%)이 부모보다는 또래에게 근접성 추구성향을 보였다. 즉,

〈표 2〉 애착의 세 요소의 부모 대 또래에 대한 비율

대 상	근접성(%)		안락감(%)		안정기저(%)		격리불안(%)	
	문항 1	문항 2	문항 1	문항 2	문항 1	문항 2	문항 1	문항 2
부 모	11.1	40.2	37.3	30.4	68.0	67.1	58.2	60.4
또 래	88.9	59.8	62.8	69.6	31.9	32.8	41.8	39.6

또래와 같이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 안락감(Safe Haven)의 경우도 60%-70%의 청소년이 부모보다는 또래에게 전이되어 있었다. 우울하거나 불안한 일이 있을 경우에 부모보다는 또래에게 위로 받고 싶어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안정기저에 관한 문항에 있어서는 또래보다는 부모의 비율이 68%로 높았다. 언제라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또래보다는 아직 부모인 경우가 많았다. 격리불안의 대상은 부모가 60%로 또래보다 높았다. 즉, 격리불안의 대상이 부모라는 것은 일차적 애착 대상이 부모임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격리불안의 질문이 그 대상을 상실할 경우 그리워하고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제시된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기능이므로 제외시키고 근접성, 안락감과 안정기저의 세 요소만 사용하여 애착의 전이정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애착전이의 조사에서 청소년들의 70% 정도가 부모를 안정기저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반면, 청소년들은(약 90%) 부모보다는 또래에게 근접성 추구 경향을 보였다. 대상 청소년들의 70% 정도가 안락감의 기능이 부모에게서 또래에게로 전이된 상태였다. 애착전이의 비율을 고려할 때, Hazan모형과 같이 근접성이 먼저 전이되고, 다음 안락감의 전이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안정기저의 전이로 애착의 전이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Hazan의 애착전이 과정 모델을 지지한다(Fraley & Davis, 1997). 본 표집에서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은 그들의 부모를 안정기저로 사용하며, 근접성 추구 행동은 거의 대부분 또래로 전이되었으며, 안락감 요소는 부모에게서 또래로 전이되었거나 전이되는 과정에 있었다. 즉, 아직 일차적 애착대상은 부모이며, 또래와 많은 시간과 활동을 공유하며, 힘든일이 있을 때 주로 친구와 의논하고 위로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애착전이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애착의 세 요소가 모두 부모에게 있는 경우를 1단계로 하고, 근접성의 두 문항 중 하나 혹은 둘이 또래일 경우는 근접성만 또래로 이동한 집단으로 애착전이 2단계로, 근접성 두 문항 중 한 문항 이상이 또래이고

안락감의 두 문항 중 1문항 이상이 또래인 경우는 근접성과 안락감이 또래에게로 전이된 애착전이의 3단계로, 그리고 여기에 안정기저의 두 문항 중 1문항 이상이 또래에게로 전이된 경우 근접성, 안락감과 안정기저 모두 또래에게로 전이된 애착이 완전히 또래로 전이된 애착전이의 4단계로 분류하였다. 빈도조사에 의하면, 애착전이 1단계에 있는 완전히 부모에게 애착되어 있는 경우는 5%(19명), 근접성만 전이된 애착전이 2단계에 있는 학생이 16.3%(62명), 근접성의 전이를 거쳐 안락감도 전이된 애착의 3단계는 40.7%(155명)였고, 안정기저까지 모두 또래에게로 전이된 애착전이 4단계로 애착이 부모에게서 또래로 완전히 전이된 학생이 31.8%(135명)이었다. 즉, 청소년 초기부터 애착의 전이가 시작되어 고등학생의 경우 5%정도만 아직 부모에게 모든 애착의 요소가 집중되어 전혀 전이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60%정도가 애착이 전이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30%가까이는 부모에게서 또래로 완전히 애착이 전이된 상태였다.

애착전이가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 연구 대상들은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나이차이에 따른 애착전이의 차이를 보기에는 나이의 범위가 좁다. 그러나 출생 년도에 따라 각 단계별 비율을 살펴봄으로써 그 경향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을 것이다. 출생 년도는 1980년 생에서 1984년 생까지 분포되어 있으나, 1981년 생이 6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1982년 생이 32.8%이고 나머지는 1980년 생이 0.8%, 1983년 생이 3.7%, 그리고 1984년 생이 0.3%였다. 1980년 생은 33.3%가 애착전이 3단계이고 66.7%가 애착전이 4단계로 또래로 완전히 전이가 되었다. 1981년 생의 40.3%가 애착전이 3단계이고 39.1%가 애착전이 4단계였다. 1982년 생의 경우 41.6%가 애착전이 3단계이고 38.4%가 애착전이 4단계였다. 1983년 생의 경우는 42.9%가 애착 전이의 2단계에 있으며, 42.9%가 애착전이 3단계이며, 14.3%만 애착전이의 4단계에 이르렀다. 1984년 생은 1명으로 애착전이 2단계였다. 1984년 생은 2단계, 1983년 생은 대부분이 2단계와 3단계이고, 1982년 생과 1981년 생



은 대부분 3단계와 4단계였으며, 1980년 생은 대부분 4단계이므로, 나이에 따라 애착전이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성은 있으나 대상의 편중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는 없었다.

### 3. 부모와의 애착, 또래애착과 애착전이 수준

부모와의 애착, 현재 또래애착과 애착전이 수준과의 관련성을 보기 위하여 상관분석한 결과를 보면, 아버지와 불안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애착전이 수준이 높고( $r=.134, p=.009$ ), 어머니와 안정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애착 전이 수준이 낮고( $r=-.146, p=.004$ ), 불안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애착전이 수준이 높았다( $r=.138, p=.007$ ). 즉, 부모와의 애착이 긍정적일수록 애착전이가 천천히 일어나고, 특히 불안형 애착일수록 애착 전이가 빨리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부모가 애착대상으로서 청소년에게 충분히 지지를 못해주는 불안형 애착 경험자일수록 새로운 애착대상인 또래에게로 빨리 전이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거부형 애착 경험과 애착전이 수준은 긍정적 상관이 있으나 유의하지는 않다. 거부형 경험자는 또 다른 거부의 경험에 대한 불안감과 애착형성에 대한 요구가 낮으므로 불안형 집단과는 달리 부모가 충분한 애착대상 역할을 해주지 못하여도 전이 또한 잘 진행되지 않는다. 이는 Fraley & Davis(1997)의 연구에서 거부형 애착유형자는 애착기능관련 전이가 지연 또는 부재 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애착전이 수준과 현재 또래와의 애착을 살펴보면, 애착전이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와 안정형 애착수준이 높고( $r=.116, p=.024$ ), 거부형 애착수준이 낮았다( $r=-.102, p=.047$ ). 또래와의 안정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에게서 또래로 애착관련 기능의 전이가 빨리 일어나고, 또래와 거부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애착전이가 지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Fraley와 Davis(1997)의 연구에서 애착의 내적실행모형과 또래에 의해 인지된 안정형 애착의 수준이 애착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지지한다. 향후 애착의 형성과 전이를 중재하는 요소들에 관한 연구

가 요청된다.

### 4. 애착유형, 애착전이와 청소년의 외로움

청소년의 외로움에 부모와의 애착, 현재 친구와 애착, 그리고 애착전이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외로움(일시적 외로움과 기질적 외로움)을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변량분석(ANOVA)과 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일시적 외로움지수는 아버지와 안정형 경험을 한 수준이 높을수록 낮고( $r=-.165, p=.001$ ), 불안형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r=.170, p=.001$ ). 어머니와 안정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일시적 외로움지수가 낮고( $r=-.206, p=.000$ ) 불안형( $r=.279, p=.000$ )과 거부형( $r=.165, p=.001$ )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지수가 높았다. 현재 친구와의 애착의 경우 안정형 수준이 높을수록 일시적 외로움지수가 낮고( $r=-.387, p=.000$ ), 불안형( $r=.318, p=.000$ )과 거부형( $r=.404, p=.000$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지수가 높았다. 이와 유사하게 기질적 외로움지수는 아버지와 안정형 경험을 한 수준이 높을수록 낮고( $r=-.219, p=.000$ ), 불안형 수준( $r=.216, p=.000$ )과 거부형 수준( $r=.117, p=.006$ )이 높을수록 높았다. 어머니와 안정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기질적 외로움지수가 낮고( $r=-.276, p=.000$ ) 불안형( $r=.306, p=.000$ )과 거부형( $r=.208, p=.000$ )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지수가 높았다. 현재 친구와의 애착의 경우 안정형 수준이 높을수록 기질적 외로움지수가 낮고( $r=-.408, p=.000$ ), 불안형( $r=.401, p=.000$ )과 거부형( $r=.422, p=.000$ )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지수가 높았다. 일시적 외로움과 기질적 외로움의 상관은 .67( $p=.000$ )로 높게 나타났다.

일시적 외로움에 있어서 애착 유형별 집단차이 <표 3-1>에 의하면, 어머니와 안정형 애착을 경험한 집단( $M=30.02$ )은 불안형( $M=34.14$ )과 거부형( $M=38.38$ ) 애착을 경험한 집단보다 일시적 외로움의 지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F=17.01, p=.000$ ). 아버지와 안정형 애착을 경험한 집단( $M=29.95$ ) 역시 불안형( $M=32.83$ )과 거부형( $M=33.17$ )집단보다 일시

〈표 3-1〉 애착유형에 따른 일시적 외로움

	애착유형	빈도	평균(표준편차)	F값
어머니 애착	안정형	239	30.02(7.66)	16.82**
	불안형	153	34.10(7.45)	
	거부형	8	38.38(5.97)	
아버지 애착	안정형	156	29.95(7.74)	6.66**
	불안형	221	32.83(7.63)	
	거부형	18	33.17(9.10)	
친구 애착	안정형	236	28.86(6.85)	49.35**
	불안형	87	35.68(7.68)	
	거부형	76	36.30(6.82)	

적 외로움의 지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F=6.66$ ,  $p=.001$ ). 이와 유사하게, 현재 친구와의 애착에 있어서 안정형 애착집단( $M=28.86$ )은 불안형( $M=35.68$ )과 거부형( $M=36.30$ ) 집단보다 일시적 외로움의 지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F=49.35$ ,  $p=.000$ ).

기질적 외로움에 대한 애착 유형별 집단 비교 〈표 3-2〉에 의하면, 어머니와 안정형 애착을 경험한 집단( $Mean=34.46$ )은 불안형( $Mean=39.65$ )과 거부형( $Mean=44.78$ ) 애착을 경험한 집단보다 기질적 외로움의 지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F=19.17$ ,  $p=.000$ ). 아버지와 안정형 애착을 경험한 집단( $M=34.08$ ) 역시 불안형( $M=38.28$ )과 거부형( $M=39.74$ ) 집단보다 일시적 외로움의 지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F=10.54$ ,  $p=.000$ ). 이와 유사하게, 현재 친구와의 애착에 있어서 안정형 애착집단( $M=32.80$ )은 불안형( $M=41.32$ )과 거부형( $M=43.50$ ) 집단보다 기질적 외로움의 지수가 유의하게 낮았다( $F=66.92$ ,  $p=.000$ ).

일시적 외로움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적합한 Model을 찾기 위해 부모와의 애착, 친구애착, 애착전이 등의 관련 변인들을 고려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일시적 외로움을 예측하는 모델〈표 4-1〉은 친구애착, 생활 만족 수준, 어머니와 애착, 애착전이 등의 네 변인을 포함한 모델로  $R=.520$ 이고  $F=28.96$ 으로  $F<.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친구와의 애착유형이 가장 예측력이 높고, 생활 만족 수준, 어머니와의 애착, 그리고 애착의 전이의 수준의 순이었다. 친구와의 안정형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현재 생활 만족

〈표 3-2〉 애착유형에 따른 기질적 외로움

	애착유형	빈도	평균(표준편차)	F값
어머니 애착	안정형	239	34.46(9.32)	19.17**
	불안형	153	39.65(8.80)	
	거부형	8	44.78(8.38)	
아버지 애착	안정형	156	34.08(9.28)	10.54**
	불안형	221	38.28(9.37)	
	거부형	18	39.74(8.07)	
친구 애착	안정형	236	32.81(7.83)	66.92**
	불안형	87	41.32(9.48)	
	거부형	76	43.50(8.12)	

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애착전이의 수준이 낮을수록 외로움지수가 높다고 예측 할 수 있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전체변량의 27%( $R^2=.27$ )로 본 연구에서 고려한 변인 이외에 외로움 지수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인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질적 외로움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Model을 찾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변인들과 함께 일시적 외로움을 포함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기질적 외로움을 예측하는 모델 〈표 4-2〉은 친구애착, 부모와의 애착, 그리고 일시적 외로움의 네 변인을 포함한 모델로  $R=.71$ 이고  $F=79.54$ 로  $F<.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일시적 외로움이 가장 예측력이 높고, 친구와의 애착, 어머니와의 애착, 그리고 아버지와의 애착 등의 순이었다. 일시적 외로움 지수가 높을수록, 친구와의 안정형 애착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와 불안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외로움지수가 높다고 예측 할 수 있다. 이 모델의  $R^2$ 가 .51로, 네 변인은 기질적 외로움의 전체변량의 51% 정도의 설명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시적 외로움은 지난 몇 주 동안 느끼는 외로움에 관한 지수이므로, 외로움의 수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요소들, 즉 현재의 애착유형을 반영한 친구와의 애착과 유년기 어머니와의 애착경험, 그리고 부모에게서 친구로 애착의 기능의 이동 정도를 나타내는 애착의 전이와 함께 현재 본인이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의 전반

<표 4-1> 일시적 외로움의 지수를 예측하는 변인

변 인	B	Beta	t	Sig.
상수	46.15		16.63	.000
친구애착(안정형)	-3.46	-.349	-6.96	.000
생활만족 수준	-1.32	-.224	-4.29	.000
어머니 애착(불안정)	2.13	.144	2.73	.000
애착전이	-1.02	-.111	-2.25	.025

R<sup>2</sup> = .270

적 생활만족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애착전이 수준은 대부분 근접성만 또래로 전이된 집단(2단계), 근접성과 안락감이 전이된 집단(3단계), 그리고 안전기저까지 전이되어 친구로 일차 애착대상이 전환된 집단(4단계) 등이었다. 이론적으로 일시적 외로움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직 친구에게로 완전히 전환되지 않은 2단계와 3단계 집단이 4단계에 비해 높다. 또한 10% 미만의 1단계, 즉 전이가 시작되지 않은 집단은 전이가 지연되는 부모와의 거부형 성향이 높은 집단이므로 외로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애착전이의 수준이 낮을수록 외로움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애착관련 요소 뿐 아니라 현재 본인의 생활의 만족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질적 외로움에서는 유의한 예측력이 없었다. 즉, 기질적 외로움은 현재 주변환경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근본적인 개인의 성격적 특성(i.e. 애착 유형)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아기 부모와 경험이 내재화되어 형성된 애착의 내적실행모형이 청소년기 외로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유형과 현재 친구와의 애착, 애착의 전이 수준과 현재의 환경 등으로 청소년기 일시적 그리고 기질적 외로움의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자세한 외로움의 기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재요소들을 고려한 모형의 검증이 필요하다.

<표 4-2> 기질적 외로움의 지수를 예측하는 변인

(Enter/Remove Regression)

변 인	B	Beta	t	Sig.
상수	17.46		6.38	.000
친구애착(안정형)	-2.40	-.206	-4.62	.000
아버지 애착(불안정)	1.18	.072	1.75	.082
어머니 애착(불안정)	1.71	.098	2.32	.021
일시적 외로움	.640	.542	11.90	.000

R<sup>2</sup> = .507

유년기 부모와 형성한 애착유형이 내적 실행모형에 의해 청소년기 친구관계에서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애착이 어떤 과정을 통해 부모에게서 또래로 전이되는지를 Hazan 등에 의해 제시된 애착전이모형(Hazan, Hutt, Sturgeon, & Bricker, 1991; Hazan & Shaver, 1994)을 통해 검증하였다. 나아가, 애착과 애착전이의 수준이 청소년들의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연구가 시행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 애착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애착유형의 지속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는 부족하다.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기껏해야 21로 변량의 4%의 설명력밖에는 없으며, 회고적 질문에 대한 측정의 오류 등 여러 가지 횡단적 연구의 제한점이 있다. 종단적 연구와 보다 정교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Hazan의 애착전이 과정 모형을 지지한다(Fraley & Davis, 1997). 본 표집에서 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은 그들의 부모를 안정기저로 사용하였으며, 근접성 추구 행동은 거의 대부분 또래로 전이되었으며, 안락감 요소는 부모에게서 또래로 전이되었거나 전이되는 과정에 있었다. Hazan모형과 같이 근접성이 먼저 전이되고, 다음 안락감의 전이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안정기저의 전이로 애착의 전이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로움지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Model을 찾기 위해 위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일시적인 외로움은 친구와의 애착유형이

#### IV. 결론 및 제언

가장 예측력이 높고, 어머니와의 애착, 그리고 애착의 전이의 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와 불안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애착전이의 수준이 낮을수록 외로움지수가 높았다. 기질적 외로움을 예측하는 모델은 친구 애착, 부모와의 애착, 그리고 일시적 외로움의 네 변인을 포함한 모델로  $R=.712$ 이고  $F=79.54$ 로  $P<.01$  수준에서 유의했다. 일시적 외로움이 가장 예측력이 높고, 친구와의 애착, 어머니와의 애착, 그리고 아버지와의 애착 순이었다. 일시적 외로움은 애착관련 요소 이외에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요소, 즉 애착전이 수준과 현재 본인의 생활만족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질적 외로움은 현재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기보다는 근본적인 개인의 성격적 특성(i.e. 애착 유형)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애착유형의 지속성의 여부와 애착전이 과정에 대한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와 보다 정교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애착전이의 수준과 이에 따른 외로움과의 관계를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재 친구관계의 지속기간이나 관계의 특성 등의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새로운 친구관계의 형성이 시작되는 학년초와 1학기말 등 간격을 두고 두 차례정도 애착전이와 애착유형, 그리고 외로움을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도현심(1996). 아동의 수줍음, 대인적응성 및 또래수용성과 외로움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17(2), 33~45.
- 2) 신호식·서병숙(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결속이 노부모의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2(2), 99-108.
- 3) 유은희(1993). 부모 자녀 관계와 수험생자녀의 학업성취. 현대사회와 가족문제-한국가족의 자녀교육열과 가족의 대처방안, 학술진흥지원연구.
- 4) 전효정(1996). 갈등해소 방법과 결혼 적응도: 애착유형, 비교수준과 동기의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창간호, 57-82.
- 5) Ainsworth, M. D. S. (1991). Attachment and other affectional bonds across the cycle. In C. M. Parkes, J. Stevenson-Hinde, & P. Marris (Eds.), *Attachment across the life cycle* (pp. 33-51). New York : Routledge.
- 6)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 Erlbaum.
- 7) Armsden, G. C. & M. T. Greenberg(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8)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9) Brennan, K. A., & Morris, K. A.(1997). Attachment styles, self-esteem, and patterns of seeking feed-back from romantic partn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23-31.
- 10) Bowlby, J. (1969/1982). *Attachment and loss : Vol. I. Attachment*. New York : Basic Books.
- 11)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12)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 III. Loss :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 Basic Books.
- 13) Cassidy, J.(1986), The ability to negotiate the environment : An aspect of infant competence as related to quality of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7, 31-337.
- 14) Check, J. V.P., Perlman, D., & Malamuth, N. M. (1985). Loneliness and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243-252.
- 15) Check, G. J., Sultam, F. E., & Williams, C. L. (1980). Loneliness, self-disclosure, and interpersonal

- effect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 462-468.
- 16) Crocker, L. & Algina, J. (1986).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modern test theory*. Orlando, FL : Holt, Rinehart, & Winston.
- 17) Denham, S.A., Remwick, S.M. & Holt, R.W.(1991), Working and playing together : prediction of preschool social-emotional competence form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62, 242-249
- 18) Dontas, C., Maratos, O, Fafoutis, M., & Karangelis, A. (1985). Early social development in institutionally reared Greek infants : Attachment and peer interac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Nos. 1-2, 136-146.
- 19) Egeland, B., & Sroufe, L. A.(1981a). Attachment and early maltreatment. *Child Development*, 52, 44-52.
- 20) Egeland, B., & Farber, E. A. (1984). Infant-mother attachment : Factors related to its development and change over time. *Child Development*, 57, 753-771.
- 21) Elicker, J., Englund, M., & Sroufe, L. A.(1992). Predicting peer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in childhood from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R. Park & G.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 Modes of linkage* (pp. 77-106). Hillsdale, NJ : Erlbaum.
- 22) Fraley, R. C., Davis, K. E., & Shaver, P. R. (1995). *Attachment behavior and relationship dissolution*.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23) Hays, R. (1988). Friendship. In S. W. Duck (Ed.), *Handbook of personal relationships*(pp.391-408). London : Wiley.
- 24) Hazan, C., Hutt, M. J., Sturgeon, J., & Bricker, T. (1991, April). *The process of relinquishing parents as attachment figure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 25)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511-524.
- 26) Hazan, C., & Shaver, P. R.(1994).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framework for research on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5, 1-22.
- 27) Hazan, C., & Zeifman, D. (1994). Sex and the psychological tether. In K. Bartholomew & D. Perlmá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pp.151-180). London : Jessica Kingsley.
- 28) Jeon, H. (1992). Mechanisms of assortative marriage and marital adjustment In *Arranged and Love-based Korean Marriages*. Master Thesis.
- 29) Jones, W. H., Hobbs, S. A., & Hockenbury, D. (1982). Loneliness and social skill defici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682-689.
- 30) Kirkpatrick, L. A., & Davis, K. E.(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502-512.
- 31) Kobak, R. R., & Sceery, A. (in press). The transition to college: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and percep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 32) Main, M., &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Nos. 1-2, 66-104.
- 33) Main, M., & Cassidy, J.(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6: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1-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15-426.
- 34) Michela, J. L., Peplau, L. A., & Weeks, D. G. (1982). Perceived dimensions of attributions for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929-936.

- 35) Pastor, D. L. (1981). The qual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and its relationship to toddler's sociability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821-829.
- 36) Rholes, W. S., Simpson, J. A., & Balkely, B. S. (1995). Adult attachment styles and mothers' relationships with their young children. *Personal Relationships*, 2, 35-54.
- 37) Rubenstein, C. & Shaver, P. (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 A. Peplau & D. Perlman(Eds.), *Loneliness: A source 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206-223). New York: Wiley-Interscience.
- 38) Shaver, P., Furman, W., & Buhrmester, D. (1985). Transition to college: Network changes, social skills, and loneliness. In S. Duck & D. Perlman(Eds.), *Understanding personal relationship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pp. 193-219). London: Sage publications.
- 39) Simpson, J., Rholes, W. S., & Nelligan, J. S. (1992). Support-seeking and support-giving within couple member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434-446
- 40) Sroufe, L. A., & Waters, E.(1977), Attachment as an organizational construct. *Child Development*, 48, 1184-1199.
- 41) Vormbrock, J. K. (1993). Attachment theory as applied to wartime and job-related marital separ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4, 112-144
- 42) Waters, E., Merrick, S. K., Albersheim, L. J., & Treboux, D. (1995, April). *Attachment security from infancy to early adulthood: A 20-year longitudinal study*. Post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43) Waters, E., Wippman, J., & Sroufe, L. A. (1979). Attachment, positive affect, and competence in the peer group : Two studies in construct validation. *Child Development*, 50, 821-829.
- 44) Weiss, R. S. (1975). *Marital separation*. New York : Basic Books